

▶ 국립전주박물관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사람들의 꿈' 특별전

바닷속에 잠겨 볼수 없었던 유물들 '한눈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와 공동으로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사람들의 꿈'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전북지역 서해안 일대의 수중문화재 조사 15년 성과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토유물 중 3천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9월 2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

전북의 수중문화재 조사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 방조제를 건설하는 대규모 물막이 공사로 인해 주변 바닷속 물깊이 변화했고, 덕분에 필 속에 묻혔던 유물이 발견돼 발굴로 이어졌다.

2002년 4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에서 소라잡이에 나선 잠수부들이 고려청자를 발견한 이후, 2003~2004년 군산 십이동파도 해역과 2006~2009년 군산 아미도 해역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수중 발굴을 진행한 결과, 고려시대 청자를 운반하던 배 '십이동파도선'을 비롯한 도자기·뒹불·철제 솥·시루·뒹불 등 1만 5천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전시는 고군산군도를 이루는 섬들인 비안도·십이동파도·아미도에서 건져 낸 다양한 고려시대 유물을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한 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다.

고군산군도 일대는 예로부터 수많은 국내의 선박이 항해하는 연안항로이며 서해 바닷길의 주요 거점이었다. 고려시대 이르러 군산지역에 조창이 설치되면서 고군산군도는 개경으로 오가는 조운로이자 중국과 통하는 해상교류 및 국제교역의 중심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나온 청자 유병(油瓶).



군산 아미도에서 나온 청자 접시

9월 24일까지 전시... 출토유물 3000여점 선배 전시기간 중 '서궁항로와 군산도 영접' 등 특강도

지였다. 또 객관인 군산정과 관청을 두어 사신과 상인들이 머무르는 기항지 역할도 했다. 오늘날 고군산군도 여러 해역에서 발견되는 수 만점의 도자기들은 당대 해안사고 흔적으로 고려시대 청자의 바닷길 유통이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전시에선 전남 해남과 전북 부안 등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품질의 청자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의 보존처리를 마친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 '십이동파도선' 선체 일부가 뒹불·시루·뒹불 등 선상생

활용품과 함께 전시된다. 이 외에 아미도 발굴 현장에 투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선인 '씨뮤즈호'(2006년 취항) 모형도 관람할 수 있다. 씨뮤즈호 시연은 29일까지 오전 11시·오후 3시에 각각 열린다. 김승희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제22회 바다의 날(5월 31일)과 전국해양문화학자 대회(7월 6~8일) 연계된 전시로, 조사된 유물의 수량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전라북도 지역 수중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내 수중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기간 중에는 중국 송나라 사신 서궁이 군산도에서 영접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고려시대 항해 거점지역으로 자리했던 군산을 알아보는 '서궁항로와 군산도 영접'(곽장근 국립군산대학교 교수·5월 25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해양문화 속 미술을 알아보는 '바닷속에서 피어난 미술'(정진국 미술평론가·6월 1일), 지난 15년간 이뤄낸 전북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의 성과를 들려주는 '수중발굴 이야기'(김병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관·6월 8일) 등 총 3회에 걸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정혜은 기자

전북미술대전 종합 대상

최용선 '네모 남자'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강신동)가 주최하는 제49회 전북미술대전에서 '네모 남자'(조소부분)를 출품한 최용선 씨가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각 부문별 대상은 공예부문 이남희의 '비너스(venus)', 디자인부문 송승희의 'T-SPEERUN 신발 신공공', 한국화부문 김순자의 '침묵', 서양화부문 김순곤의 '흔적', 수채화부문 정숙희의 '소금꽃', 민화부문 문금송의 '소소한 일상', 서예부문 한은희의 '도연명 잡시(한문)', 문인화부문 김미숙의 '녹매'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종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31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수상자 전시는 한국화·서양화·수채화·조소·공예·디자인·판화·민화는 오는 28일까지, 서예·문인화는 오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각각 열린다. /정혜은 기자



'원주 한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재)원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작가 원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원주군민을 공개모집한다.

이 사업은 원주문화재단이 외부 예술인의 원주 문화귀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첫 시도하는 파입렛 프로그램이다. 예술가들에게 가장 창조적이고 사적인 공간인 '예술가의 방'과 '예술가의 작업실'을 매개로 재단은 동시대 예술의 다양성과 재능 있는 청년작가들을 다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술가의 방은 원주군민의 집에 외부 예술가가 입주해 한 달 동안 원주살이와 예술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주일에 1회 예술가는 집주인과 함께 대화·산책·예술관련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프로그램과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한 달 후 원주살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면 된다.

'예술가의 작업실'은 유휴 공간 또는 빈집을 활용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한 달 후 오픈하우스를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원주군내 빈 방 또는 빈 작업공간을 소유한 자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및 거주공간으로 한 달 동안 제공할 수 있으면 된다.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군민에게는 소정의 임대료 등이 지원된다.

거주공간을 제공할 군민 모집기간은 29일부터 31일까지이다. 1차 서류전형과 실사 및 면접 등을 통해 10명 내외의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며, 본격 프로그램은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은 기자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의 역사적 가치 재규명

진안군, 5차 조사 이달 말 착수... 조사 후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진안군은 22일 성수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에 대한 5차 조사를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후에는 학술심포지엄과 국가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5차 조사에서는 2016년 4차 조사에서 민가 등으로 인해 일부만이 조사된 벽돌·진흙가마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가마의 전반적인 구조 양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

가 가마의 존재와 퇴적층 층위를 확인하고 출토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분석과 가마에 대한 보존처리까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2013년부터 총 4차례 이루어진 문화재 조사 결과 초기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로 확인되었으며 진흙가마 1기와 벽돌·진흙가마 1기 총 2기의 가마가 조사되었다.

특히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이행하는 청자 가마의 변화양상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가 잘 남아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학술심포지엄과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도 함께 추진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통문화상품 상용화·사업화 전폭 지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상품들이 다양한 상용화 방안을 통해 사업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창조센터(원장 오태수)는 전통문화자원과 현대 기술, 그리고 디자인 등이 접목된 다양한 상품들의 상용화와 시장 진출을 위해 '2017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상품이 일상생활과

과리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벗어나, 시장성 있고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개발된 상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통문화 소재·기법 등이 활용된 상품 보유자, 전통문화와 현대적 기술이 융·복합돼 실용성과 미적 가치, 지속 생산 가능한 상품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개발된 시제품을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데, 전당은 2차례에 걸친 공모 접수를 통해 총 20건의

시제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자들에게는 ▲상용화 지원비 500만원 ▲기업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우수 상품 지적재산권 등록 및 유통 관리 지원 ▲국내외 박람회 전시 출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1, 2차로 나뉘 1차는 6월 8일~14일, 2차는 6월 28일~30일까지다. 지원자는 이 기간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개발 포트폴리오를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www.ktcc.or.kr)을 참조하거나 전통문화창조센터(063-281-1573)로 문의하면 된다.

오태수 원장은 "융복합 상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기존의 다양한 전통문화상품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우수한 우리의 전통문화상품들이 현대인의 생활에 성공적으로 녹아들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대중적 문화상품으로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통문화전당 창조센터, 문체부와 함께 실시키로

상품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20건 시제품 선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5일 젠더문화축제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6회 젠더문화축제를 연다.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내 24개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를 정하고 각 기관별로 각각의 행사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10시 별관 2층에서 '섹슈얼리티, 여성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은하선 작가(EBS 가칠남녀의 고정패널)의 특별강연이, 같은 시간대 별관 1층에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 '하늘 위에 사는 아이'가, 오후 12시부터는 워킹맘·워킹대디가 일·가정 양립 방안을 모색해 보는 '도란도란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젠더문화 정책포럼이 열린다. '성평등 조금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성차별 사례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2시30분에는 성매매방지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인 '클릭'이 상영되며, 김재별 감독과의 대화 및 토론도 이어진다. 부대행사로 7개 시·군 여성친화기업과 예비여성 CEO의 물품판매 및 홍보 코너, 센터 교육수강생의 작품 전시관개전, 국립여성사 전시관의 '여성독립운동가' 컬러링 코너, 양성평등 포스터전시회가 마련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프로그램별로 참여자 사전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특히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여명과 유치원·초·중·고등학생 300여명의 사전 신청을 완료하여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3 또는 홈페이지(www.jbwc.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혜은 기자



'모양마을 사람들' 포스터

고창농악보존회, 두번째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

지난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도리화 귀경가계'를 이을 두 번째 감성농악 시리즈 '모양마을 사람들(연출 김호준)'이 오는 27일 개막해 4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재)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가 제작하는 '도리화 귀경가계'는 지난해 상설공연 객석점유율 9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고창 대표 공연 브랜드로 자리 잡은 작품으로, 보존회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모양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동리 신재효와 조선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전통연희 볼거리로 풀어낸 '도리화 귀경가계'의 뒤를 잇는 전통연희음악극으로 지

난 3월 전라북도 한옥지원활동 야간상설 공연으로 선정되었다.

김호준 연출은 "미스터리 감성농악을 표방하는 '모양마을 사람들'은 도로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당산나무가 베어질 위기에 처한 모양마을 사람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을곳을 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극과 농악 그리고 기악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라며 "사막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제작한 이명훈 회장은 "이번 상설공연을 통해 고창농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지난 30여 년간 쌓아 온 고창의 전통문화예술의 에너지를

받아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도리화 귀경가계'에서 보여주신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호남우도 영무장 농악을 제대로 즐기시러 고창읍성으로 많이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리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은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스폰서협동조합, 진흥식품, 곡산당고창명주(주)가 협찬사로 참여하는 한옥상설공연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에 고창읍성 내아에서 펼쳐진다.

/고창=김영식 기자